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백두혈통 뿌리'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2면 상단에 '김정숙 동상'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는 군인들의 사진과 함께 찬양 기사를 통해 "어머님은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영생하신다"며 김일성 주석 보위에 앞장섰던 김정숙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따라 배우자고 독려함.
  - 김정숙의 동상은 항일빨치산 활동 시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김일성에게 날아오는 총탄을 몸으로 막으며 일본군에게 권총을 쏘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김일성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김정숙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선전되고 있음.
  
- **北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軍 신진간부들 대동(종합)(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 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12월 24일을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밝히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현화하고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과 훈장보존실, 유품 보존실 등을 둘러봤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김정일 최고업적은 영도 계승문제 해결"(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는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 중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라고 주장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을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백승의 지략,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영군술을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 인민의 '일심단결'을 촉구함.
  - 더하여 신문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과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단호히 짓밟개버려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은, 최룡해 건의에 張 사형승인…집행 후 눈물(12/25, 요미우리(讀賣)신문)**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의 건의에 따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간부 3명이 건의해 김 제1위원장이 사형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광저우(廣州) 발로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장 전 부위원장의 사형이 집행되고 닷새 후인 17일 평양 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울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밝힘.
  
- **北 '선군정치 역사' 강조…군부 위상 강화 영향인가(1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정치'의 역사를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미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시작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빛나는 영광의 행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역사적 시기로서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행사 시작(12/26,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12월30일)을 나흘 앞두고 경축행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을 인용해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경축모임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현상주 직총 중앙위원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부문 모범일꾼 표창 직접 수여(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참가했던 군부대 선장·어부에 대한 국가표창식에 참석해 이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꾼(간부)과 선장, 어로공(어부)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이들에게 표창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수여했다"고 밝힘.
  
- **北 '헌법절' 맞아 '김정은 유일영도' 거듭 강조(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



의 사회주의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밝힘.

- 더하여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전 당과 온 사회에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기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박봉주 총리, 張 숙청 후 단독 현장시찰 재개(1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박 총리가 평양 용성-서포지구의 살림집(주택) 건설현장과 평양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27일 보도함.
  - 박 총리의 현지시찰 소식이 전해진 것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실각이 결정되기 전날인 지난 7일 국가과학원 방문 보도 이후 20일 만에 처음이며 이번에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공계획과 건설자재 공급 실태를 알아보고 협의회를 열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한해 동정보도, 김정일 '능가'(12/27, NHK)**
  - 올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국영 매체의 동정보도 건수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의 연간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고 NHK가 27일 보도함.
  - NHK는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 올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동정 보도 건수는 2012년(152회)보다 47% 늘어난 224건으로 집계함.
- **北 장성택 처형후 첫 대사급 소환... '신호탄' 되나(종합)(12/27,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광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 부부가 27일 호송 조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발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광철 대사는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관리하던 외무성 라인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은,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격술훈련 참관(종합)(12/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3168군부대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본 뒤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됐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훈련성





■ 김정은동향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軍최고사령관 추대' 22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럽철성을 비롯한 군 지휘성원들 참가
-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 '뜻깊은 12.24' 즈음 조선인민군 제526대 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및 장병들 축하(12.25,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서흥찬, 김수길, 박정천, 박태성, 김동화 등 동행
  - 김정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
-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 12.24 故 김종세(김일성상계관인이며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빈소에 화환 전달(12.25,중통·중평방)
- 12/27,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수산부문 모범적 일꾼들에 대한 '黨 및 국가표창수여식'(당중앙위 회의실) 참석(12.27,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2.27,중통·중방)
- 12/2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 제3168군부대·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 참관 및 기념사진 촬영(12.28,중통·중방)
  - 최룡해·김원홍·김경옥·황병서 함께 참관 및 기념사진 촬영
  - 김정은, '림혜순(남포경공업전문학교 교장)' 등 모범강연 강사들에게 감사 전달(12.28,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원산지(강원도)에 건립 제막식, 12.22 진행(12.22, 중·평방·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막사)·박봉주(내각 총리)·장정남(인민무력부장)·김기남(黨 비서)·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로두철(내각 부총리)·김용진(내각 부총리)·박정남(강원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
- '김정은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김영남)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22주년 동향】
- [노동신문 사설]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군건설위업" 칭송 및 "가장 고귀한 업적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했다"며 쏘민의 '김정은을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 것' 강조(12.24, 평방·중통/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20년간 '96년 2만5,000여리, 97년 3만리, 98년 4만리의 선군장정과 사망시까지 2,490여개 단위의 무력부대 현지시찰' 칭송(12.24, 중통·중방)
- 김정일의 '선군정치·군사강국 칭송 및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강조 일색(12.24, 중·평방/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영원히 승리 떨치리·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등)
- 【김정숙(김정일 母) 96회 생일(12.24) 동향】
- 김정숙의 '항일혁명투쟁 활약상 및 수령결사옹위' 등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칭송 글(12.24, 중통·평방/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정숙 동지·천위전사의 위대한 한생·수령님의 전사는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시며 등)
- 김영남·박봉주 등 黨·국가 책임일꾼들과 黨·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인민군 등, 12.24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12.24, 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 용성-서포지구 살림집 건설정형 및 평양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요해(12.27, 중통·중방)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13년 농사총화, 다음해 농사대책 토의)' 진행, 박봉주(총리)·리철만(부총리 겸 농업상, 올해 농사총화보고) 등 참가(12.28, 중통)
- 회의에서는 '다음해 농사를 잘 짓는 문제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임'을 강조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2.2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2.29,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보고),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사회),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김영대(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참가
-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대한 과업임.
-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 식의 위력한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 함.
- 우리의 총창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역사가 확증한 진리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 땅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임.

나. 경제

● 조선신보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모습 아니다"(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모든 기업체가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다"고 북한 경제변화의 핵심요소를 소개함.
- 이어 신보는 3·26전선공장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건설대상에 전선과 케이블을 보장할 과업이 생기면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을 하면서 집중전을 벌인다"며 "이런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 작업반마다 정확히 계산이 이뤄지고 그 평가가 노임에 반영된다"고 밝힘.

● 北김정은 공개활동 올해도 '경제' 집중...전체 41.4%(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함.
- 이 가운데 경제·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것은 84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했고 이 중에는 군 관련 생산 시설 현지 지도도 포함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올해 경제·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개 활동을 하며 방문한 장소는 모두 6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北, 무역항 관리 법제화··"해상무역 발전 노력"(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27일자와 29일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항무감독법'을 소개함.
  - 민주조선은 항무감독법의 제정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규해설 코너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을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이 법도 올해만 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 내용 2년 만에 공개(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자체 홈페이지에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 ·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며 7장 74조로 된 법 전문을 공개함.
  -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 지역에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 재외동포도 투자, 황금평 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 ·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힘.
  
- **北 관리 "내각이 경제사령탑 기능 똑똑히 수행할 것"(12/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게 된다고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자기 기능을 똑똑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더하여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내각에서는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질서가 흐트러진 부문들에 대한 지도와 장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北 최대수출품 무연탄, 中 수출가격 오름세(12/28, 왕이(網易))**
  - 북한의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뉴스포털사이트 왕이(網易)가 28일 전함.
  - 이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가격은 지난달보다 t당 4~5달러(4천200~5천200원)가 오름.

■ 기타 (대내 경제)

- 개성도시건설사업소,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12.23,중방)



#### 다. 군사

- **北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장성택 성토장 되나(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건군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 회의'가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숭고한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함.
  - 더하여 신문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군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는 22일 회의 참석자 숙소를 방문해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만선의 뱃고동 소리를 계속 울려나갈 것"을 당부함.
  
- **北 최룡해 측근 新군부 인사들 약진…군 원로 퇴진(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내보냄.
  - 신문은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군부 인사로 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으로 밝힘.
  
- **北 김정은 군부대 방문…"전쟁은 미리 광고하지 않아"(종합)(1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24일)을 맞아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년) 기념일인 24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일선 군부대 시찰은 장성택 처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더하여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초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운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빛날 것"이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 건군 이래 첫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가 건군 이래 처음으로 26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과 물고기잡이에서 모범을 보인 어로공(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 선장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 **中 언론 "북한군, 중국 국경 야간순찰·경계 강화"(12/28, 환구시보(環球時報))**

- 북한이 최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야간 순찰과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8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접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발 기사에서 자체 취재 결과 북한 국경경비대가 평상시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北 "군인은 최고사령관의 전우"...軍心잡기 '총력'(1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최고사령관과 전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한 핏줄을 이은 전우대군, 동지의 강군"이라며 "노동계급과 농민들도, 붓을 든 지식인들도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우'라는 혁명군대의 전우관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라고 역설함.
- 신문은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의 관계를 "혈연의 동지"라고까지 표현하며 "몇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전우가 되고 전민이 총폭탄이 돼 원수님(김정은)을 옹위해 나서는 여기에 우리 전우애의 특출한 높이와 위력이 있다"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내 군사)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리영길(軍 총참모장)·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군대 책임일꾼들, 12.22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22, 중방·중통)
-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12.22 인민무력부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 및 대성산혁명열사릉·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참관(12.22, 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北 지난해 1인당 GDP 783弗...한국의 3.4% 수준(12/17, 연합뉴스)**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발간된 '통일경제 2013 겨울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의 783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2만3천113달러의 3.4% 수준이며 방글라데시는 850달러, 미얀마는 835달러로 밝힘.

● **北 금강산 개발 '장밋빛' 청사진...콘도에 카지노도(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접속한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 웹사이트에서 금강산관광특구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며 '1단계 개발 총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보도함.
-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계획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



선신보나 대북 소식통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긴 했지만 전체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11년 5월 법으로 금강산관광특구를 설치하고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여행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하고 있음.

● **北, 주말마다 스포츠경기... "분위기 전환용" 분석(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주말마다 평양에서 인기 스포츠 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내각 체육성 관계자를 인용해 "선수들의 육체·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목적으로 주말마다 체육경기들을 조직·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한다"고 밝힘.

● **北TV "평양 강동군서 신석기 무덤 발굴"(12/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과학자들이 평양시 강동군 란산리 주현동의 자연동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무덤 유적을 발굴했다며 "무덤들에서는 '조선 옛 유형 사람뼈' 9개체와 질그릇 조각을 비롯해 많은 유물이 나왔다"고 보도함.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45% 감소(1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45%나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는 이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액이 6천200만 달러(약 658억 원)로 집계됐다고 전하며 이는 지난해의 1만1천300만 달러보다 45% 감소한 액수라고 밝힘.

● **北 "美 '북한 위협론'은 MD체계 구축 위한 핏수"(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미국이 요즘에 와서 여느 때보다 북조선 위협론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북조선 위협론은 한마디로 말해 궤변"이라고 밝힘.
- 중앙통신은 미국이 최근 "예측불가능한 북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꺾도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수립하려 한다느니 뭐니 광고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론의 본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 체계를 구축해 중국을 비롯한 '지역 대국들'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스페인서 북한 관광상품 첫 출시...8일 상품 210만원(12/25, 연합뉴스)
  - 25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북한통상정보 37호'에 따르면 스페인 여행사 '데스티니아닷컴(Destinia.com)'은 북한 당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지난 6월 북한 여행상품 계약권을 따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이 상품은 8일간 북한의 평양, 남포, 개성, 원산, 함흥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가격은 1천450유로(약 210만원)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서방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을 취급하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북한 관광 상품이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밝힘.
  
- 北, 日 특정비밀보호법 비난..."군국주의 야망"(1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최근 일본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을 비난하며 "아베를 비롯한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야망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날 '자멸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에 아베 세력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발표함으로써 헌법을 수정하고 군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 中 시진핑 주석, 北 김정은에게 연하장(12/26,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새해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연하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연하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연하장을 전달해왔다고 전함.
  
- 케네스 배, 12월 초 가족에 편지 후 무소식(종합)(12/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13개월 넘게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가 이달 초 가족에게 안부편지를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 사는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는 최근 RFA에 12월 초 배 씨로부터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밝힘.
  
- 북-러, 내년도 어업쿼터 확정(12/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내년에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상대국이 취할 수 있는 어획량을 확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RFA는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4~26일 평양에서 제27차 북-러 어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내년도 어업 쿼터에 합의했다고 전함.

● 北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제2의 침략전쟁 선언" 비난(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던진 제2의 침략전쟁 선언"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자멸의 길을 가는 일본'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특급 전범자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신사는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駐北 이란 무관단, 12.23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2돌 즈음 '장정남'(인민무력부장)을 통해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 (12.23,중통)

- 【중통사 논평】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회의에서 日당국자의 '북핵·미사일 위협·납치문제' 거론 관련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 마련과 성노예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문제로 만신창이된 영상을 다소나마 회복해 보려는 어리석은 잔꾀'라고 비난(12.23,중통/저들을 알아야 한다)

- 日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파렴치한 날강도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日 당국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12.23,평방/더욱 파렴치해지는 독도강탈 책동)

- 【중통 논평】 미국의 '북조선위협론'은 '亞-태지배전략 실행의 합리화 기도'로 "MD(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무력증강을 다그쳐 잠재적 적수들 견제목적"이라고 비난(12.24,중통/'북조선위협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 美 '퓨연구센터'의 '2013년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 여론조사 결과(과반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간섭 반대, 자기문제 자체해결') 인용,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국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12.24, 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통신 "日 '北核 위협' 거론은 재침준비책동 구실"(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침략적 역사를 희석화하려는 '잔꾀'라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저들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납치자가 국제적으로 보편적 문제라고 언급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이어 "그것은 일본이 더욱더 본격화되는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같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문제로 만신창이 된 저들의 영상(이미지)을 다소나마 회복해보려는 어리석은 잔꾀"라고 주장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차대통령에 "신뢰냐 대결이나 선택하라" 공개질의(종합)(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고 공개 질문을 던지고 박근혜 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이날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된다고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이제라도 민족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겠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겠다는가"라면서 "대결과 전쟁은 자멸의 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단체 "민노총본부 강제진입은 야만행위"(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직총)는 27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대해 "야만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직총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경찰의 이번 공권력 투입을 "수천만 근로대중을 파쇼통치의 노예로, 적으로 보는 반인륜적인 유신독재의 후예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야만행위"라고 주장함.
- **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직(종합)(1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인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쇼적 탄압만행"이라고 맹비난함.
  - 이어 박근혜 정부를 "극악한 인권교살자"라고 규정하면서 "파쇼폭압에 광분하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거든



파쇼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12.25)】 대통령에게 '신뢰냐 대결이냐' 등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박OO 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2.25,중통·중방)

·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OO 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신뢰인가 대결인가,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누가 도발자인가, △비방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선택은 누가 바로 해야 하는가.

-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발언(정쟁을 그만두고 민생문제 해결) 관련 '철도파업' 및 '철도 민영화'를 거론하며 '독점 재벌들을 비호하면서 노동자들은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12.25,평방/집권 위기 모면을 위한 민생타령)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38노스 "영변 핵시설에 다시 환연기">(12/25, 동아일보)

-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간)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 위치한 5MW급 흑연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위한 연료 생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제기했음.
- 38노스는 "핵연료봉 제조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 지붕에서 하얀 연기 흔적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연료봉 조립의 열처리 과정에 필요한 화학가스나 수증기로 추정된다"며 "연료봉 제조에 쓰이는 불산의 표백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고 밝혔음.
- 38노스의 분석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동향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의미를 둘 정도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음.

#### 나. 미·북 관계

##### ● <북 억류 케네스 배, 이달 초 가족에 편지>(12/26, 자유아시아방송)

-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12월 초 자유아시아방송에 배 씨로부터 잘 있다는 편지를 받은 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전했음.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26일 미국 정부는 배 씨의 건강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 씨에게 특별사면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며, 북한이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초청한다면 킹 특사는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은 케네스 배 씨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배 씨의 현 상태나 대사관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와 접촉했는지 등에 관해 답해 줄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밝혔음.

#### 다. 중·북 관계

##### ● <中 '김정은 방중' 논의되는 것 없다고 밝혀'>(소식통)>(12/23,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3일 중국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외무성 의례국(의전국)장인 리광남 일행이 베이징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도 양국 의전 관계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정례교류로 특정인사(김정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음.
- 한편, 최근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을 경계하는 공안요원이 1명에서 2~3명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장성택 측근 망명설'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한국대사관 측은 이에 대해 "공안에 문의한 결과, '연말을 맞아 하는 특별경계근무로 베이징시내 모든 대사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중국, 2015년까지 단둥 항만시설 확충>(12/24, 연합뉴스)

- 신화망은 중국은 북한 신의주와 인접한 단둥항에 '국가 12·5(12차 5개년·2011~2015년) 발전 계획' 기간 내에 60여 개 선석을 신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부두 확장과 배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 정부는 현재 30만 규모의 광물 전용부두 건설을 비롯해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 연해지역이 없는 동북 각 지역과 단둥항을 연결하는 철도, 고속도로를 계속 확충하고 있는바, 2015년에는 단둥항의 화물 물동량이 4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해운 화물은 랴오닝성 다렌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둥항의 시설이 확충되고 항로가 늘어나면 중북 교역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라. 일·북 관계

● <北, 日 특정비밀보호법 비난... "군국주의 야망">(12/26,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최근 일본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아베를 비롯한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야망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신문은 일본 자위대가 헌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특정비밀보호법을 통해 이를 은폐할 수도 있다며 "일본 반동들의 목적은 이 법에 따라 그들의 모든 불순한 행위를 특정비밀이라는 구실로 사회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일본이 지난 17일 결정한 새 '방위대강'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위대강에서는 교활하게도 이웃나라들의 최근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마. 러·북 관계

● <러북, 어업위원회 개최... 쿼터 확정>(12/27, 자유아시아방송)

- 27일 이타르타스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평양



에서 제27차 러북 어업 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어업 수산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시마코프 연방수산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러북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내년 어업 쿼터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어업 쿼터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 러시아 측은 특히 현재 중단된 북한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 러시아 어선의 조업 활동을 내년 초 재개기로 하고 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음.
- 이밖에도 양국 수산 분야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어업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도 중점 논의됐다고 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전문직비자·對北제재…해넘기는 美 '한반도 현안'(12/27,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의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반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나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 등은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사정으로 결국 연내 이뤄지지 못하게 됐음.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양국은 내달 초 다시 서울에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임.
  - 북한에 역류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도 새해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올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 나. 한·중 관계

- <中 "한·중, 소통·협력 강화기로">(12/2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양국 간 첫 외교안보대화에 대해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외교안보대회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양측이 미래비전공동성명에서 확정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며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이번 외교안보대화에서 한국정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성택 숙청'에 따른 북한 내부정세의 변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됨.

● <“한국,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 해야”(中 전문가)>(12/27, 연합뉴스)

- 27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이 개최한 '한국-중국 동북 3성 공공외교포럼'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중국은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전략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중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한중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안보 협력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왕 교수는 앞으로의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의 냉철한 판단을 주문했으며, 한중 간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음.
-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 왕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은 한중의 공통된 목표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한반도 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점차 대북관계를 다른 나라 관계와 비슷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믿음을 갖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일본 "한국 탄약지원, 법적근거 없어 유엔 거친 것">(12/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빛부대에 자위대의 탄약이 공급된 것에 관해 한일 사이에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아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따라 탄약지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에게서 1만 발의 소총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이 온 시점은 21일 오후 10시 45분께라고 밝혔음.
- 남수단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가와 겐이치 부대장은 탄약이 한국군에 전달된 직후 한국 측이 "일본 부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 이 탄약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부대의 강한 유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탄약 지원이 유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강조하며 일본과 관련짓는 것을 경계했음.



- <日 "對한국 실탄제공은 무기수출 규제원칙 예외">(12/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3일 밤 남수단에 주둔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것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정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 담화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담화는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시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 한일 문제서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대응 움직임>(12/24,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한·미·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과거사와 관련한 갈등과는 별도로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과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아덴만 해역에서 대(對)해적작전 수행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스쿠니 참배, 엄청난 파장일 것"...한일관계 최악>(12/26,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6년 이후로 처음 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 성명도 외교부 대변인이 아닌 정부 대변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안보정책 협의회 개최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로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모색해 오던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더욱 어렵게 됐다.
  - 양국 감정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행사 강행,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과 같이 연례적으로 예정돼 있는 일본의 '도발 일정'과 더불어 내년 2분기 부터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라. 미·중 관계

##### ● 〈中, 잠수함탑재 미사일 시험발사〉(12/24, 연합뉴스)

- 중국시보는 중국군이 22일 중국 북동부 보하이 해역에서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인 '쥬랑(巨浪)-2'를 전략핵잠수함(094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 이 미사일은 3~6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9천km로 태평양에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바,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쥬랑-2가 전력화되면 중국군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기반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음.
- 대만 언론은 최근 중국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은 미국 등을 향한 '군사 시위'의 의미가 있다면서 쥬랑-2와 동평-41은 중국군의 2, 3세대 핵무기로 중국의 미래 핵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26일 중국 국방부의 정연성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 22일 보하이 해역에서 실시됐던 1차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와 추가 시험발사 계획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음.

##### ● 〈美 무역대표부 "중국 무역행태에 많은 우려"〉(12/25, 연합뉴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눈에 띄는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 USTR은 보고서에서 "경제계획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며, 자국 내 주요 기업에 주는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것과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도 지적했음.
- USTR은 미국 정부가 중국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지만 WTO의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중국은 이달 초까지 WTO에 미국을 8차례 제소했으며, 이 가운데 4번의 제소는 올해 이뤄졌음.
- 한편 미국과 중국은 농축수산물부터 타이어와 원자재 등에서도 WTO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희토류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음.



#### 마. 미·일 관계

##### ● <펜타곤 "美日 환경관리협상 환영"...후텐마이전 '물꼬'(12/26,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주일미군 기지 활동과 관련한 환경관리 협약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양자협상에 착수한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음.
- 미 국방부는 특히 이 협약이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보완하는 양자합의를 포함하며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미군 활동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협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 펜타곤이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은 후텐마 기지문제의 진전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 <"오키나와현, 미군비행장 현내이전 동의방침">(12/26,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일본 오키나와현이 미군 후텐마 비행장(공군기지)을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해안 매립작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미·일은 2006년 후텐마에 있는 미 해병대 비행장을 2014년까지 오키나와현 북부인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이 '현외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이전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앞서 아베 신조 총리와 나카이마 지사는 25일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만나 기지 이전과 관련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이번 진행 사항에 따라 이행이 지체되어온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 ● <미국 "일본의 '긴장 악화' 행위에 실망">(12/26, 연합뉴스)>

- 주일미국대사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26일 오후 공식성명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친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음.
- 성명은 이어 "일본과 이웃국가들이 과거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관계를 향상시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일본의 평화 결의를 재확인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음.
- 이 성명은 미국의 첫 공식입장으로 이날 아베 총리가 참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며, 이어 켄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6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음.



- <軍 "한빛부대, 군수지원 받는 즉시 日탄약 반환할것">(12/27, 연합뉴스)
  -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한일 군사교류 가능성을 일축했음.
  -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유엔 주선으로 이뤄진 남수단 한빛부대의 일본 자위대 탄약 지원과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서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음.
  - 위 부대변인은 이어 한빛부대가 받은 일본 자위대의 실탄에 대해서는 "후속 군수지원이 도착하면 그 즉시 유엔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탄약은 곧바로 무상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바. 중·일 관계

- <中 방공구역 선포 한달... '강대강 대치'속 대화 기류>(12/22, 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23일로 한 달이 되는 가운데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하며 중재외교를 벌였고, 중국도 남중국해 방공구역 설정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갈등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 센카쿠 방어를 강화하는 등 '강대강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긴장 상태가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번질 경우 양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 관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교도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중일 방위당국 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중국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청용화 주일 중국대사가 첫 공식 회동을 한 것도 위기관리 모색의 하나로 비춰졌음.
  - 그러나 결국 이번 방공구역 갈등이 확전으로 가느냐, 수습으로 가느냐에 대한 열쇠는 일차적으로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 <「日, 中 성장 정확히 인식하고 대우해야」>(中 위정성)>(12/25, 연합뉴스)
  - 인민일보는 25일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위정성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베이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이 중국의 발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위 주석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중일관계를 "강 하나를 사이에 둔(一衣帶水) 가까운 이웃"에 빗대며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맞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중국 최고 지도층 인사의 이런 표현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간접 거론한 것은 결국 일본의 '태도 변화'에 발언의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아베 야스쿠니 참배로 중일관계 더 꼬이나>(12/26, 연합뉴스)
  -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함으로써 '우경화'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함에 따라 중일 간 갈등의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일본의 군사화 추세에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음.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외교적 언사로는 비교적 거친 용어를 동원하며 강력히 비난했으며 아주사의 뤼자오후이 사장도 "중국인은 절대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함에 따라 그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진행됐던 물밑 협상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우려됨.
- <중국 왕이, 日야스쿠니 도발에 "끝까지 갈 것" 천명>(12/27, 연합뉴스)
  - 신정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기테라 마사토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하고 "만일 일본이 중일관계의 마지노선까지 계속 도발하면서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중국 역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왕이 부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중일 간 체결된 4개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일본 역대 정부와 지도자들이 역사문제에 대해 취한 태도와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했으며 "일본의 행위는 이미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는 중일 관계에 새로운 정치적 장애를 조성한 것으로, 중국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1년 내내 이뤄진 아베 총리의 언행들에 비춰본다면 이는 "허위, 거만,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음.
  - 이와 관련, 중국 환구시보는 27일 평론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선포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자고 제의했음.

#### 사. 일·러 관계

- <러-日, 내년 1월 평화조약 체결 2차 협상>(12/26,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내년 1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무 차관급 대표가 만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2차 협상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양국은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1차 협상이 지난 8월 모스



크바에서 개최된 바 있음.

-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이 종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 4개섬 반환을 평화 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임.

아. 기타

● <中 '중국판 블랙 호크' 즈-20 시험비행 성공>(12/23, 연합뉴스)

- 환구망은 목격자의 말을 인용 이날 중국 동북지역의 한 비행장에서 즈(直)-20 헬기의 첫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즈-20은 10t급 다목적 헬기로 미국의 UH-60 블랙호크를 모델로 개발됐으며, 뛰어난 기동성과 비행능력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즈-20 개발에 나섰으며, 이번 시험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즈-20은 이르면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전문가들은 즈-20이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 11만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12/24,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인터넷 매체 첸잔을 인용해 중국의 첫 항공모함 라오닝호가 전투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 전투능력을 점점 증진 가운데 중국이 자체 기술로 11만급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부 소식통은 이 항공모함이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진수될 경우 중국은 태평양 공해상에서 미국의 최신 함재기에 맞설 수 있게 되며 이런 중국의 새 항공모함 건조는 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라오닝호는 최근 아직 충분한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미군 항공모함과 비교해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말레이시아와 합동군사훈련 시행키로>(12/25,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24일 평평후이 중국 군 총참모장은 방중중인 말레이시아 군사령관 줄키펠리와 회담을 하고 합동 군사훈련 시행, 해군 함정 교환방문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키로 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군사훈련 및 군사교육 협력, 군 고위층 상호방문 등도 확대하기로 했음.
-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중립적인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처하고 군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만 "日, 이웃 국가 상처주는 행동 중단해야">(12/26, 연합뉴스)
  - 대만 외교부는 26일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은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유감을 표시했음.
  - 대만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이웃 국가의 국민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이어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각 이해 당사국은 냉정해야 한다"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음.
  
- <대만, 中반발 속 미국서 신형무기 잇단 도입>(12/27, 연합뉴스)
  - 차이나포스트는 대만 국방부는 26일 입법원 보고에서 32기의 최신형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 이 미사일은 대만이 보유한 잠수함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효사거리가 125km로 대만해협에서 중국 연안지역 군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음.
  - 이어 대만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치 공격용 헬기 30대와 블랙호크 수송헬기 60대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 대만은 2008년 친 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 확충은 멈추지 않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연료난으로 '꿀뽕부대' 급증(자유아시아방송, 12.24)**
  - 북한의 도시 지역 노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으며, 일명 '꿀뽕부대'로 불리는 늙은이들이 한 끼 밥을 짓기 위한 쌀감을 얻기 위해 거리의 쓰레기들과 휴지조각들을 닦치는 대로 거두어간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겨울철 쌀감이 없어 고생하는 늙은이들이 세관과 역 주변에서 흘러진 석탄이나 버려진 종이상자(박스)를 줍고 있다며 등에는 그런 것을 모아 넣을 큰 배낭을 메고 있다고 설명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가면 '꿀뽕부대'라고 불리는 늙은이들이 있다"며 "'꿀뽕'이라는 말은 '속이 빈 자루'라는 뜻으로, 이들 늙은이들은 여러 명씩 조를 지어 유원지나 공원 등지에서 관리원으로 행세하며 쓰레기들을 모아가 한 끼 밥을 해먹을 정도의 쌀감으로 이용한다고 언급
  -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들을 괘시하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거리가 한결 깨끗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요즘은 '꿀뽕부대'도 너무 늘어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도 한 끼 밥을 끓일 쓰레기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조
  
- **북한 억류 케네스 배 석방 탄원서명 10만 명 육박(미국의 소리, 12.27)**
  -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구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운동 서명자 수가 2주 만에 무려 8만 명 넘게 늘어 10만 명에 육박
  - 세계 최대 탄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 닷 오르그'에 26일 현재 배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서명을 남긴 사람들 수는 9만 9천7백44명
  - 이 사이트엔 1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배 씨의 귀환을 기원하는 글들이 시시각각 게재
  
- **"평양산원 8백 달러" 구직 뇌물 만연(자유아시아방송, 12.27)**
  - 북한에서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로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소마다 자체 수익구조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일수록 뇌물의 크기도 정해져 있어 구직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함.
  - 최근 중국 대련에 나온 북한 주민은 "노동자 월급이 30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올랐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 곳은 몇 개 안 되는 공장뿐이고, 나머지 공장들은 사실상 출근명부에 도장만 찍는 형편"이라고 언급
  - 또 겨울철 들어 수요가 급증한 석탄을 캐는 탄광 노동자의 경우, 노임이 향상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팔리는 석탄 가격에 비해볼 때 차려지는 몫



은 보잘것없다고 강조

- 북한은 공장, 기업소 단위 자체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독립채산제 지침을 내려 보낸 결과, 생산단위들은 한숨 돌리지만 비생산 단위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민들은 돈과 쌀을 주는 직장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뇌물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막혀있는 형편
- 소식통은 "의대를 졸업하고 평양산원에 의사로 취직하려면 미화 800달러를 줘야 가능하다"면서 "요즘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밥벌이 못하는 의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
- 또한 평양산원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현지시찰 대상으로, 식량배급을 제대로 주고 있어 의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이나, 반대로 한구역인민병원에 다니는 의사는 하루에 담배 한 갑 벌어도 못한다면서 "그가 받는 월급 2천원으로 이발 한번 하기도 어렵다고 언급

● 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직(연합뉴스, 12.28)

- 북한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인 '남조선인권대책협회'를 만들어 정부를 비난하는 데 적극 활용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쇼적 탄압만행"이라고 맹비난
- 이어 박근혜 정부를 "극악한 인권교살자"라고 규정하면서 "파쇼폭압에 광분하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거든 파쇼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
- 한국 노동자와 각계층에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각국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에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
- 이 단체가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0월 16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임.
- 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 배경과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中 언론 "북한군, 중국 국경 야간순찰·경계 강화"(연합뉴스, 12.28)

- 북한이 최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야간 순찰과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북한 접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발 기사에서 자체 취재 결과 북한 국경경비대가 평상시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
- 신문은 한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 내용처럼 북한군이 현재 최



- 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북한 국경경비대가 전에 없이 야간 순찰과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도
- 예년의 경우 겨울철에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경비대는 혹독한 추위 탓에 야간에 순찰하는 병력이 낮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올겨울에는 야간 순찰 병력이 주간보다 많다는 것
- 북한이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밀무역도 끊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북한 측이 탈북자 발생을 우려해 접경지역 일대의 중국인 대상 단기관광코스 운영을 전부 중지했다고 보도

### ● 북한 내각 전원회의서 식량문제 해결 강조(미국의 소리, 12.29)

- 북한이 28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식량문제 해결을 포함한 내년도 농업 부문 과업을 결정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번 회의는 농업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등 내각 성원들과 함께 내각 직속기관 간부들과 각도 인민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 등이 방청으로 참석
- 조선중앙통신은 농사 문제가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임이 이번 내각회의에서 강조됐다고 보도

## 2. 북한인권

### ● 北인권법 첫 논의했지만...연내처리 물건너가(연합뉴스, 12.2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함.
- 법안심사소위의 북한인권법 논의는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움.
-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와 함께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과 정권, 국제사회에 미치는 상징성 등을 거론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응징'에 무게를 둔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기본적인 시각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 ● 하태경 "北공포통치·인권유린 규탄결의안 추진"(연합뉴스, 12.25)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 적법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더 큰 문제는





- 통일부는 현재 합동신문을 받는 인원을 더해 올 한 해 입국한 탈북자가 1천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
-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으로 2천명을 넘긴 이래 일정 규모를 유지해왔으나,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본격 출범한 작년에 1천502명으로 급감

#### ● 중국 유력 주간지, 탈북자 상황 이례적 특집 기사(미국의 소리, 12.27)

- 중국 남부 지역의 유력지인 '난팡두스바오' 산하 주간지 '남팡저우칸'은 26일자에서, 중국 동북지방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을 통해 탈북자들의 삶을 자세히 조명
- 이 매체는 중국 투면과 북한의 남양을 잇는 두만강대교 사진과 함께 웹 사이트 머릿기사로 올린 기사에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
- 한국이나 서방 언론이 탈북자들의 열악한 삶을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국 언론이 기획취재를 통해 탈북자의 삶을 자세히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
- '남팡저우칸'은 탈북자가 강제복송되면 수감시설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도 있다고 언급
- 중국 내 탈북 남성들은 대개 농촌에서 농사와 가축을 돌보는 등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고, 여성들은 술집이나 식당, 목욕탕에서 일하거나 농촌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탈북자들이 중국어를 모르고 신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개 중개인을 통해 탈출하고 있다며, 중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며 이들이 체포될 경우 밀입국 조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수입이 좋기 때문에 출소 뒤 다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
- 하지만 '남팡저우칸'은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탈북자 정책을 소개하거나 강제복송의 문제를 비판하지는 않음.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5. 납북자

- 특이 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한국 6.25 전사자 유전자 분석, 10번째 신원 확인(미국의 소리, 12.27)**
  -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10번째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힘.
  -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지난 1950년 6월 28일 강원도 춘천 인근 원창고개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세한 순경으로, 김 순경의 유해는 지난해 5월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습
  - 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에서 채취된 DNA와 등록된 유가족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사자 신원을 파악했으며, 김 순경의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

## 7. 대북지원

- **국제사회 올 대북지원 45% 감소(자유아시아방송, 12.23)**
  -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5% 급감
  - 2013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6천 200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도에 1억 1천 300만 달러보다 약 45% 감소
  - 현재 23일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지원국 숫자도 올해는 13개국으로 지난해에 비해 6개국이 축소
  - 작년까지 대북 지원 국가들이 증가하던 추세에서 다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올해 대북 인도지원에 동참한 나라들은 19개국으로, 지원 규모로는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호주, 그리고 캐나다 순
  - 한편,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의 강경화 사무 차장보는 최근 국제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점차 줄어든다고 언급
- **북 주민 900명에 백내장 시술(자유아시아방송, 12.24)**
  - '백내장'은 경우에 따라선 간단한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안과 질환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고 있어 네팔과 호주, 미국의 민간단체가 협력해 북한 주민에게 백내장 수술을 실시
  - 네팔의 민간단체인 '틸강가(Tilganga)'를 통해 평양과 신의주 지역 북한 주민 900여 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이 단체의 리타 그렁 박사가 언급
  - 그렁 박사는 호주의 '프레드할로우재단(The Fred Hollow Foundation)'의 재정 지원으로 북한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 기법에 관한 연수도 진행됐다고 덧붙임.
  - 지난 주 북한 안과 전문의 2명이 연수를 받은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안과 의사 26명과 수술 전문 간호사 7명 등이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수술



- 관련 설비 지원은 물론 북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도 개최
- 미국의 민간단체인 '히말라얀 백내장 프로젝트'는 2004년 नेपाल 주재 북한 대사관의 요청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백내장 치료 활동에 참여
- 탈강가는 내년 4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북한 의료진에게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

● **CFK, 북 결핵 환자들에 이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2.24)**

-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겨울의 혹한에 대비해 이달 초 북한 황해남북도의 병원들에 지원될 담요 400장을 선적
- 북한에는 이미 혹한이 찾아왔으며, 특히 결핵 환자들은 추운 겨울 속에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
- 이번에 선적한 이불이 1월 안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불과 비슷한 시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12월 초에 환자들이 깔고 누울 수 있는 이불 장판도 중국에서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
- 또한 북한의 등록된 결핵 발병건수가 2007년 5만 2천 건에서 2013년에 10만 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호소

● **통일부, 2개 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연합뉴스, 12.24)**

- 통일부는 24일 어린이재단, 남북평화재단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으며, 지원 물품은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 재료 등 2억 1천500만 원 어치 규모
-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의 인도적 대북 지원액은 65억 5천만 원으로 증가
-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정부는 기존 신청 단체에 대해 승인 요건이 이뤄지는 대로 계속 승인을 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8. 북한동향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수석비서관회의, 명분없는 집단행동), 엄정대처'에 대해 "유신독재자의 악행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선동 지속(12.22, 중통·노동신문·평방/생존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야만행위)
- 현 정부에 대한 노동운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시위 관련 '反정부투쟁은 파쇼독재통치를 실시하며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심의 분출'이라며 '인민들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12..23, 중통·노동신문/반역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 北, '민노총' 건물 공권력 투입 관련 '철도노조 핵심성원들에 대한 체포를 구실로 건물 안 진입을 시도하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KBS방 송인용 간략 보도(12..23, 중방)
-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발언(정쟁을 그만두고 민생문제 해결) 관련 '철도파업' 및 '철도 민영화'를 거론하며 '독점 재벌들을 비호하면서 노동자들은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12.25, 평방/집권위기 모면을 위한 민생타령)
- 김종인 前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탈당 의사 표시와 진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거론하며 '측근들로부터 비난과 버림을 받고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는 이것이 현 집권자의 가련한 처지'라고 비난(12.25, 평방·노동신문/외톨이로 되어가는 가련한 신세)
-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선공약을 거론 '민심을 우롱하며 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무참히 짓밟은 당국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며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응당한 투쟁'이라고 주장 (12..26, 평방/파쇼통치가 초래한 응당한 귀결)
- 대선공약 : 국민의 동의나 합의없이 철도, 전기,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실현하지 않을 것.
- '민노총' 건물 공권력 투입 관련 '진보와 민주의 싹을 모조리 짓밟개 버리고 집권안정과 반인민적인 독재통치 실현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12.26, 평방/군부 독재광들을 무색케 하는 파쇼 깡패무리)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